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은행권, 은행세 보다는 사적 은행구제기금이 바람직

- 유럽의 대형 은행들은 금융위기 재발시 파산 직전의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사적 은행구제기금이 은행세 보다 효과적이란 주장을 제기함.
 - 이탈리아 UniCredit의 CEO는 200억유로 규모의 사적 은행구제기금이 마련될 경우 정부나 유로구제금융기금의 도움 없이 구제금융이 필요한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함.
 - 안정채권을 발행하여 파산에 처한 은행의 지급보증을 담당하게 될 사적 은행구제기금은 최근에 거론되는 정부 주도의 은행세나 부실채권의 강제 주식 전환 등에 대응하여 제기된 대형 은행들의 대안임.
 - 따라서 은행세를 통해 은행구제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영국, 미국, 프랑스, 독일 정부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.
- 사적 은행구제기금을 주장하는 옹호론자들은 민간부문에 의해 자율적 방법으로 해결되는 장점이 있으며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은행세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함.
 -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될 경우 은행세는 일반 국민에게도 소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의한 자율적 기금 마련이 보다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함.
 - 또한 영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은행세의 도입으로 금년 중 마련될 약 20억파운드 의 기금은 중소규모의 은행 정도만 구제될 뿐 대형 은행의 파산 방지에는 활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함.
- 한편, 사적 은행구제기금 마련은 사전적 기금과 사후적 기금 마련으로 의견이 분리되는 상황을 보여줘 향후 이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 - 글로벌 은행 로비단체인 국제금융연합회(IIF: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)는 사적 유럽은행구제기금을 지지하지만 사후적인 기금 마련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대형은행들은 사전적 기금 모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함.
 - IIF는 사전적 기금 마련은 파산에 대한 안전장치로 작용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과도하게 리스크를 담보하는 모럴헤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함.

(Financial Times, 7/11)